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번역현황 및 독자수용양상 고찰

- 최근 5년간을 중심으로

최 은 정
(계명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최근 5년간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현대소설의 현황 및 이들의 독자수용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한국현대소설의 번역현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다양성이다. 이광수, 김유정, 김동리, 박경리, 신경숙, 공지영, 김영하, 박민규, 천명관, 김애란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이 고르게 번역 소개되고 있다. 둘째, 당대 여성작가 작품들에 대한 번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없이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번역 출간하는 작품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결과,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탄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하, 천명관, 김애란, 박민규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등단한 작가 작품들이 중국에서 비교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서사방식이 참신하며 현실과 밀착되어 있고 가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관심은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에서 한국현대소설이 주변에 놓여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그 안에서도 읽히는 작품은 읽힌다는 사실이다. 둘째,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냉담함은 한국현대소설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학’번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전문번역

가의 양성 및 ‘정진’번역을 통해 ‘한국’의 현대소설이 갖는 다름을 소개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현대문학 연구자, 번역자와 출판주체 간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현대소설, 중국어번역, 독자수용, 참신함, 현실성, 가독성

1. 서론

요즘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담론 중의 하나가 양국의 문화교류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네이버에서 ‘한중문화교류’, ‘한중인문교류’ 등을 키워드로 하여 뉴스를 검색해보면 각각 만여 건, 이천 여건 이상의 기사가 올라온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도 ‘중한문화교류’와 ‘중한인문교류’를 키워드로 하는 신문표제어가 각각 육천 건 이상, 오백 건 이상이 넘는다. 양국이 ‘인문유대강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2013년 이후 양국은 인문유대강화사업의 세부항목을 정하여 정책적으로 시행,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양국의 문화교류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인문교류의 범주에서 양국의 도서를 번역 소개하는 작업은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내용일 것이다. 양국에서 상대국의 도서 점유량이 5위권 안에 있는 것은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도서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한다. 중국의 최근 10년간 해외도서수입량 증가폭에서 한국도서의 증가율은 2위에 올라와 있고¹⁾, 2014년 도서 판권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1160종으로 미국, 영국, 일본, 대만에 이어 5위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를 순문학²⁾으로 한정해보면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하다. 국내 독

1) 朱英华, 曲莹, 「韩国引进版图书出版现状浅析」, 『活力』, 2015年3期.

2) 본고에서 사용하는 ‘순문학’은 한국현대문학의 범주 안에서 연구 또는 평론의 대상이 되는 작가 작품을 의미한다. 때문에 분석대상인 ‘한국현대소설’도 순문학을 지칭한다. 사실 중국에서 인식하는 ‘한국현대소설’은 대중소설, 드라마/영화 소설(드라마로 만들어진 후 소설/영화로 재작업한 소설), 인터넷 소설 등을 다 포괄한다. 실제로 이들이 중국 내 도서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영향력은 순문학보다 훨씬 더 높고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이들의 중국 내 수용 또한 당대 중국사회의

자들이 한국소설하면 떠올리는 작가 작품과 중국 독자들이 한국소설이라는 범주에서 인식하는 작가 작품의 간극은 심각할 정도로 깊다. 이는 중국의 최대 인터넷 서점인 당당왕(当当网)에서 한국소설분야를 검색해보면 명백하게 나타난다. 1992년 수교 이래 우리말 소설의 중국어 번역 출판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안타깝다 못해 의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중국 내에서 한국소설의 자리는 번역활동과 독자수용이 명백히 별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한국소설의 번역계적 및 한국소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인식 및 기대지평을 살피는 것은 향후 한국현대소설의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이나마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중국 내 한국현대소설의 번역현황 및 이들의 중국 내 수용에 대해 검토해보고,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현대소설의 지형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기실, 한국문학의 중국어번역에 관한 연구는 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끊임 없이 논의되어 왔다.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바, 하나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번역본 비교를 통한 번역 문제를 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문학의 궤적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후자에 한정되는 바, 비교적 꼼꼼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 이들 연구는 주로 번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기별로 번역된 작

한 문화현상이자 중국이 한국소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특별히 ‘순문학’에 한정하여 ‘한국현대소설’의 중국 내 번역과 독자수용을 탐색한다.

- 3) 이 분야의 관련 연구 논문 및 자료로는 왕염려, 『중국의 한국 현대 문학 번역 및 수용 양태 연구: 수교 이후 번역된 소설을 중심으로』(인하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4); 홍정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민족문화사연구』 43호, 2010); 김학철, 『20세기 한국문학 中譯史 연구-이데올로기와 문학번역의 관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이병길 외,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 연구-한류현상을 계기로 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한국문학번역원, 2005); 고인덕,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수용 사례에 관한 연구」(『중국어문학논집』 43호, 2006); 박재우, 「한중현대문학교류사고(1)-작품 번역에 의한 교류와 그 과제를 중심으로」(『중국학보』 제39집, 1999년); 金一, 「韩国文学中在中国的翻译与出版现状综述」(『延边大学学报』, 2013년8월); 金鶴哲, 「中韩建交以后中国文坛对韩国纯文学的译介研究」(『当代韩国』, 2009年第1期); 趙莉, 「韩国文学翻译三十年(1976-2006)」(『外国文学动态外』, 2006年第5期); 金长善, 「20世纪后半

품을 검토하고, 나아가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짚어낸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과 중국 양국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진행되긴 했지만, 한국문학의 중국어번역 연구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기반 위에서, 특별히 독자수용에 중점을 두어 중국 내 한국현대소설의 번역현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서 서술했듯, 중국 내 한국문학번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번역물과 독자수용 사이의 거리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현대소설의 번역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중국의 양대 인터넷서점으로 꼽히는 당당왕(当当网)과 아마존차이나(亚马逊)의 한국소설 목록과 판매량을 분석하여 최근 5년간 어떤 작품들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소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때, 언론매체의 반응, 서점에서 제공하는 작품리뷰 및 독자리뷰 등의 검토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인터넷서점의 집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중국독자들의 독서취향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없다.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는, 속칭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문학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독자들이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책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이며, 그러한 평판을 입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베스트셀러인지의 여부⁴⁾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선호하는 작품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면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하다. 어느 시점에서의 베스트셀러가 “독자들의 잠재된 욕망과 사회에 대한 응전 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⁵⁾는 것 역시 독자중심의 문학수용현황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베스트셀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작품리뷰와 독자리뷰 등은 중국에서 소설을 읽는 방식과 시선 등을 일면이나마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국독자들이 한국현대소설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 중국에서

期韩国文学译介在中国」(『世界文学评论』, 2006年第2期) 등이 있다.

4) 박옥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베스트셀러에 관한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2호, 2011, 4쪽.

5) 김경숙,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과 독서의 사회사-1980~1990년대 베스트셀러시의 ‘사랑’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2005, 202쪽.

주로 소비되는 한국현대소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 내 한국현대소설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탐색해보고, 한국현대소설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번역현황 및 특징

중국에서 우리 문학이 번역 소개되기 시작한 역사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조선 소설을 최초로 소개한 작품집은 후평(胡風)의 『산신령-조선대만단편집(山靈-朝鮮台灣短篇集)』인데, 여기에는 장혁주의 「산신령」과 「성묘 가는 남자(上坟去的男子)」, 이복명의 「초진(初陣)」⁶⁾, 정우상의 「소리(聲)」 등 한국작가 3명의 단편소설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후평이 일본잡지에 실린 작품을 보고 번역한 것으로, 1936년 상해문화생활출판사(上海文化生活出版社)에서 출간하였다. 번역한 작품들이 식민치하 조선의 암울한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조선인들의 노력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본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였고 서구 제국주의의 수탈에 힘겨운 상황이었던 중국의 지식인으로서, 후평은 이들 작품에 당대 중국사회와 중국인을 투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은 우리와 이웃한 형제민족인데, 일본 침략자의 통치를 받게 되어, 조선 백성들이 망국노의 처지에 빠져 버렸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일본 잡지에서 이들 작품을 발견했는데, 읽고 나서 이 작품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를 고발한 것으로 극히 구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생각하여 번역하게 되었다. (...) 내용은 모두 억압당하는 조선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이다. (...) 노동자들의 경우, 물론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단체생활을 하고 있기에 계급적인 각성을

6) 원제는 「질소비료공장」으로, 1932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하지만 단 2회 연재만에 원고는 압수당하고 그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국내에서 발표가 불가능하게 된 이 작품은 일본좌익작가들이 주관하던 잡지 『文學評論』 1935년 5월호에 「初陣」으로 번역되어 게재된다. 홍남질소비료공장에서 일했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인 공장에서 일하는 조선 노동자들의 곤고한 삶과 투쟁을 담았다.

할 수 있고 단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마침내 피의 투쟁이 일어난다. 이복명의 《初陣》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⁷⁾

이러한 때 《初陣》, 《送報夫》 등 작품 속 주인공의 각성과 꺾기와 불요불굴의 전진에서 내가 느낀 감격스러움은 실로 표현하기 어렵다. (중략) 요 몇 년 동안, 우리 민족은 하루하루 생사존망의 절박한 고비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동양의 평화보장’을 완벽하게 실행할 시기에 이르렀기도 하다. 이러한 때 나는 ‘외국’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일로 읽었다. 이 이유를 독자들도 틀림없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⁸⁾

이 시기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작품집으로 1941년 출간된 『조선단편소설선(朝鮮短篇小說選)』이 있다. 여러 역자들에 의해 번역된 작품을 묶은 것으로, 비교적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동인의 「붉은 산(赫色的山)」, 이효석의 「돈(猪)」, 이태준의 「까마귀(烏鴉)」, 김사량의 「월녀(月女)」, 유진오의 「복남이(福男伊)」, 이광수의 「가실(嘉實)」, 장혁주의 「이치삼(李致三)」과 「산개(山狗)」 등 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1930~1940년대 중국의 조선소설 번역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장혁주에 대한 관심이다. 『산신령-조선대만단편집』은 장혁주의 작품명을 작품집 이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조선 문학 네 편 중 두 편이 장혁주의 작품이다. 『조선단편소설선』에도 장혁주의 작품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장혁주에 대한 중국 역자들의 관심은 이 시기 이들이 조선 문학을 번역 소개하는 판단 기준을 짐작케 한다. 주지하다시피, 장혁주는 일제 말기 일본어로 작품을 쓴 대표적인 작가로, 해방 이후에는 일본에 귀화하여 작품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국내 문학사에서는 주변에 놓인 작가이다. 하지만, 초창기 그의 작품은 식민지 시대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국 역자들의 관심 또한 이러한 작품들을 향한다. 이들에게는 장혁주가 일본어로 창작을 했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장혁주에 대한 중국 역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후평의 언급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사실상 나는 장혁주가 혁명적인

7) 胡風, 「胡風回忆录」, 『胡風全集 第7卷』, 湖北人民出版社, 1994, 319-320页。

8) 胡風, 「<山零>序」, 『胡風全集 第8卷』, 湖北人民出版社, 1994, 676页。

작가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가 어떤 작가든 나는 그의 작품만을 볼 뿐이다. 그의 작품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인민들을 동정하고, 압제자와 착취자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는 투쟁에 유리하니 당연히 그것을 귀한 교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⁹⁾ 후평의 언급에서 나타나듯, 이 시기 조선 문학에 대한 중국역자들의 시선은 식민 치하 참혹한 현실과 이에 대한 비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계급투쟁을 내세우고 있는 작가 작품들을 향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중국 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시대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카프 계열 작가 작품들이 주로 번역 소개되었다. 이기영의 『땅(土地)』(1957), 한설야의 『대동강(大同江)』(1959), 『역사(歷史)』(1957), 『최서해소설집(崔曙海小說集)』(1959) 등이 이 시기 번역 소개된 대표적인 작가 작품이라 할 것이다.¹⁰⁾ 이러한 상황은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이른바 중국의 신시기에 진입하는 1979년 이후부터 변화한다. 1980년 『外国文艺』 1기에 ‘남조선단편소설5편’이 게재되었는데, 김동인의 「배따라기(船歌)」, 김동리의 「까치소리(喜鵲叫)」, 박영록의 「낡은 주전자(古壺)」, 서기원의 「이 성숙한 밤의 포옹(深夜的拥抱)」, 안수길의 「제3인간형(第三种类的人)」이 그것이다. 1983년에는 상해역문출판사(上海译文出版社)에서 『남조선소설집(南朝鲜小说集)』을 출간한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 발표된 총17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남조선문학이 아직은 낯선 중국독자들이 남조선문학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시기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¹⁾ 출판사 내부발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행량이 3만9천부에 이르렀다고 한다.¹²⁾ 출판사 내부발행이라는 것은 이미 여타 문학잡지에서 ‘남조선’이라는 이름하에 문학작품들이 소개되기 시작하긴 했으나, 여전히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근 4만부에 육박하는 발행

9) 胡風, 「胡風回忆录」, 320页.

10) 陈玉刚主编, 『中国文学翻译史稿』,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 1989, 358页 참고.

11) 金长善, 「20世纪后半期韩国文学译介在中国」, 『世界文学评论』 第2期, 2006年, 284页 참고.

12) 같은 글.

량은 금지되어 있던 것에 대한 호기심 내지 기대를 읽을 수 있게 한다.¹³⁾ 『남조선소설집』의 출간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에 대해 김장선은 “개방과 보수가 만나는 과정에서 속박을 풀어내기 위해 겪는 진통‘이라고 풀어내기도 했다. 다만, 김동인, 계용묵, 주요섭 등 분단 이전의 작가 작품들도 남조선문학이라는 이름하에 편입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의 낯설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이 소설집은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1989년 서기원의 작품 「이 성숙한 밤의 포옹」을 대표제목으로 하여 다시 발행되기도 했다. 1980년대 번역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1988년에 발간된 『남조선문제소설선』(南朝鲜问题小说选)이다. “문제소설선”이라는 작품집 명칭에서 나타나듯 당대 한국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작품들이 중심이다. 이처럼 1980년대에는 번역된 작품은 많지 않았으나 한국 근·현대소설사에서 비교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이 고르게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는 『外国文艺』, 『世界文学』, 『译林』, 『外国文学』 등 외국 문학 전문 잡지들이 한국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근·현대 소설을 번역 소개하고 평가하기 시작한다. 1993년 『译林』 제3기에 실린 「오독이」(狂乱时代)¹⁴⁾는 한국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소개된 최초의 작품이다. 1994년에는 『世界文学』 제3기에 ‘한국문학특집’으로 김지연의 「배꽃 질 때」(梨花), 황순원의 「소나기」(雷雨), 오영수의 「갯마을」(浦口渔村)과 김동리의 「무녀도」(巫女图)가 소개되었다.¹⁵⁾ 이들은 모두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

13) 중국에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마이너리그』의 중국어본 『汉城兄弟』는 10,000부를 발행하였고, 같은 해에 <한국당대문학총서>라는 이름으로 화성출판사(花城出版社)에서 출간한 『搭讪：殷熙耕小说选』은 6,000부가 발행되었다. 근래 비교적 발행부수가 많은 편인 『寻找母亲』도 10,000부를 발행하였다. 이로 보자면 4만부에 육박하는 발행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하겠다.

14) 이 작품은 1990년 『신동아』의 논픽션 당선작이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성과 현실성이 비교적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다만, 문학사적인 의미에서 논하는 순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앞서 ‘남조선’작품이라는 이름을 걸고 번역 소개된 작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로 보자면, 『译林』에서 의미하는(또는 중국에서 의미하는) 한국문학의 범주는 상당히 광범위함을 할 수 있다.

15) 역자인 崔成德은 동호에 실린 「韩国文学四十年概览」에서 한중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世界文学』에서 ‘한국문학특집’을 기획하고, 이들 작품을

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잡지들의 번역 소개 외에, 1990년대 한국 드라마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한류’도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 한 몫을 하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는 초보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번역되는 작가나 작품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못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잡지들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잡지들의 적극적인 번역 소개에 힘입어 단행본 출간도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¹⁶⁾도 큰 몫을 하였는데, 번역 지원과 더불어 번역된 작품의 작가 초청 세미나를 중국에서 개최하는 방식 등으로 한국문학과 작가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갔다. 이로부터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번역은 양적으로도 상당한 증가를 이루게 될뿐더러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을 아우르게 된다. 그리하여 그간 인터넷 소설 및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이미 익숙해진 대중소설 등이 주류를 이루던 것에서 한국현대소설의 흐름 내지는 방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의 소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최근 5년간의 번역현황을 보면 매년 10여종의 작품들이 꾸준히 번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김동리, 김유정, 현진건 등 대표적인 근대작가 작품부터 이문열, 박경리, 이문구, 박범신, 김영하, 성석제, 박민규, 김애란 등 최근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그 범주가 상당히 넓다. 물론 여전히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번역지원을 받아 출간하는 작품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2015년 같은 경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출간하는 작품의 점유율이 꽤 높으며, 중국 내 출판종수가 가장 많은 공지영의 경우에는 『봉순이 언니』를 제외한 모든 작품이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박범신, 김영하의 경우도 지원받은 작품종수보다 자체적으로 번역 출간한 작품종수가 더 많다. 이는 중국에서 한국현대소설의 독자성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배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선정하여 번역했음을 밝히고 있지만, 작품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16) 한국문학번역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문학의 중국어번역 지원 건수는 전체 1053건 중 111건으로, 영어, 불어, 독어에 이어 4위에 올라와 있다.

〈표 1〉 2010-2016(4월 기준) 번역된 작품종수(괄호 안은 지원을 받은 작품종수임)¹⁷⁾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번역종수	18(2)	9(7)	9(7)	10(7)	14(13)	12(7)	3

〈표 2〉 2010-2016(4월 기준) 3종 이상 번역된 작가

작가	작품명
공지영 (6)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像犀牛角一样只身前行 2010) 봉순이언니(凤顺姐姐 2010) 즐거운 나의 집(快乐我家2010)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我們的幸福時光 2010) 고등어(鯖鱼 2010) 사랑 후에 오는 것들(爱过之后来临的 2011)
신경숙 (6)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想要说给月亮听的故事 2015) 엄마를 부탁해(妈妈,你在哪里? 2013) 깊은 슬픔(深深的忧伤 2012) 바이올렛(紫罗兰2012) 리진(李真 2012)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哪里传来找我的电话铃声 2011) 엄마를 부탁해(寻找母亲 2010)
김영하 (5)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我有破坏自己的权利 2015) 검은 꽃(黑色花 2015) 퀴즈쇼(猜谜秀 2015) 오빠가 돌아왔다(哥哥回来了 2014) 빛의 제국(光之帝国 2012)
박범신 (4)	숲은 잠들지 않는다(丛林不眠 2013) 출라체(一如草芥的尘 2013) 은교(因为痛,所以是爱情 2012) 비즈니스(流苏树 2010)
김애란 (3)	두근두근 내 인생(我的忐忑人生 2014) 침이 고인다(嚙满口水 2014) 달려라, 아비(老爸,快跑 2012)
한강 (3)	내 여자의 열매(植物妻子 2014) 검은 사슴(玄鹿 2013) 채식주의자(素食主义者2013)
천명관 (3)	고령화 가족(高龄化家族 2014) 나의 삼촌 브루스 윌리스(我的叔叔"李小龙" 2014) 고래(鲸 2011)

17) 한국문학번역원 및 대산문화재단의 번역 지원 목록, 양영려 논문(2014)의 ‘1992-2013년도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번역 목록’, 인터넷 서점인 亚马逊, 当当网, 京东에 올라와 있는 소설목록을 참고하였다. 대산문화재단이 한국문학의 중국어번역 지원을 시작한 2007년부터는 지원받은 작품 수에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작품도 추가하였다. 대산문화재단의 사업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매년 2-3종의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지만 출판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대 여성작가들의 작품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2>에서 보이듯, 2010년 이후 3종 이상 출간된 작가 7명 가운데 4명이 여성작가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문학잡지들의 한국현대소설 번역소개현황에서 이미 그 현상을 읽을 수 있다. 중국에서 역량 있는 문학잡지 중 하나로 꼽히는 『作家』의 경우, 2003년 8월에 ‘현대문학상수상 작가 작품 특집’으로 김인숙, 조경란, 이인화의 소설 3편을 게재하였고, 2004년에는 ‘1970년대생 작가 특집’으로 다섯 명의 한국 작가 작품 및 평론을 게재하였는데, 윤성희, 조민희, 천운영 등 세 명이 여성작가였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출판사인 인민문학출판사는 2007년 한중수교 15주년 및 한중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박완서의 『그 남자의 집』(那个男孩的家), 은희경의 『새의 선물』(鸟的礼物), 신경숙의 『외딴방』(单人房)을 ‘한국문학총서’로 선정하여 발행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현대여성작가들의 작품 소개가 활발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는 1990년대 이후 한국문단에서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까닭일 것이다. 신경숙, 은희경, 공지영 등을 필두로 하여 정이현, 김애란 등 문학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가들이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연 번역되는 작품종수도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대 중국문단의 여성문학 흥기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역시 문학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역량 있는 여성작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여기에 1980년대 유입되어 한층 깊어진 페미니즘 사조 역시 여성문학의 흥기에 일조했으리라 본다. 중국에서 진행된 한·중문학의 비교연구에서 양국 여성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또한, 권위 있는 문학상 수상작이 우선 번역되는 가운데,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연이어 출간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주지하다시피, 공지영, 신경숙, 박범신 등은 국내에서 다수의 문학상 수상 경력으로 작품의 문학성을 이미 입증 받았고 대중적으로도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김영하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제1회문학동네신인작가상(1996)’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였고, 천명관의 『고래』는 ‘제10회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이며,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는 2005년 ‘한국일보문학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들 외에도, 박민규나 성석제 등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어로 여러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는 작가들의 공통점은 문학상 수상작 또는 국내에서 이슈가 된 작품을 필두로 하여 다른 작품들도 잇달아 번역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들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작품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근대소설보다는 현대소설이, 중견작가들보다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이 갈수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낯설음이 덜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최근 5년간 한국현대소설의 번역현황은 중국 내 한국현대소설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근대를 대표하는 작품들부터 최근의 한국현대소설의 흐름을 알려주는 작품들까지, 중견작가부터 신예작가들까지, 다양한 작가작품의 소개로 한국현대소설의 지형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중견작가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등단한 신예작가들로 점점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문학상 수상경력이 중국에서 커다란 브랜드 네임이 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의 한국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선호경향

양적인 측면만을 보자면,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번역은 상당한 정도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번역물의 양적인 증가가 반드시 독자층의 확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한국현대소설의 번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한류'와 별개로, 독자지형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한국작가작품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아(韩国作家图书在中国不好卖)”(2012년6월5일, 半岛晨报), “중국출판인은 한국도서에서 어떻게金を 깎 것인가(中国出版人如何在韩国图书中掘金)?”(2014년9월16일, 中国出版传媒商报) 등, 한국문학 관련된 일련의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무관심과 냉담함이다.

이와 관련, 가장 대표적인 한국문학 번역가이자 시인인 쉬에저우(薛舟)는 중국 내 한국문학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 내 한국문학은 급속하게 퇴조하였으며, 지금의 중국 독자들은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호기심조차 없다고 냉철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한류’로 인한 편견에서 찾는다. 한국 순문학이 중국 내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대중소설들이 한국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독자들을 만났고, 수많은 트렌디 드라마들까지 더해져서, 부지불식중에 한국 문화는 가벼운 유행거리라는 선입견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인민문학출판사의 한국문학 책임편집자 역시 ‘한류’가 한국문화를 중국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순문학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오히려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지적한 바 있다.¹⁸⁾ ‘시장’을 고려해야만 하는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나 영화 등을 소설화한 작품들이나 이미 중국에서 시장성이 입증된 인터넷 소설 또는 대중소설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한국소설’ 또는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인식을 고정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바이두에서 ‘한국소설’이나 ‘한국문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귀여니의 소설 같은 인터넷 소설이 대부분이며, 중국에서는 이를 ‘한국청춘소설’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읽어낸다. 신화서점 같은 중국 대형서점에서도 <한국문학>으로 분류된 서가에서 순문학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한국소설’ 또는 ‘한국문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당왕, 아마존차이나, JD.COM(京东)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이 집계하는 소설분야 베스트셀러에서 한국현대소설은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다. 당당왕의 한국소설 카테고리에서 꾸준히 10위권 안을 지키고 있는 순문학은 『상도』가 유일하다. 당당왕보다는 순문학의 비율이 좀 더 높다고는 하지만, 아마존 차이나 역시 10위권 안에서 순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이 또한 중국에서 한국문화가 수용되는 하나의 방식이며, 이러한 것들이 중국 내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일정 정도 견인하고 있음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인터넷 소설

18) 于丽丽, 「静静的韩流:韩国文学在这些年」, 『新京报』, 2012.9.3.

이나 대중소설들이 보유하는 높은 시장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인식이나 평가가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¹⁹⁾ 바로 여기에 이들 작품이 ‘한국소설’이나 ‘한국문학’으로 보편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덧대지는 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에서 순문학의 독자층이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학’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있는 한국순문학의 중국 내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 인터넷 서점 모두 10위권 안에 진입한 작품들 가운데 순수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외국소설의 인기가 많은데,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 가브리엘 제빈의 『섬 위의 서점』, 레이첼 조이스의 『해럴드 플라이의 놀라운 순례』, 히가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이 그 중 눈에 띄는 작품들이다. 이들은 각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에 1위부터 10위 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크게 많이 읽힌 작품들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독자들의 독서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된 작가작품이 반드시 중국에서도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독자들은 어떤 한국현대소설을 읽고 있을까. 인터넷서점인 당당왕과 아마존차이나에서 집계하는 베스트셀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당당왕의 경우 순문학보다는 영화/드라마를 소설로 만든 작품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아마존 차이나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순문학이 조금 더 비중이 많다. 월별로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9) 2000년대 초반 이들 작품이 중국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나온 기사들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한국판 인터넷소설이 청소년들의 독서지도를 좌우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과 이러한 인터넷 청춘소설을 패스트푸드에 비유(“韩流”韩国的文学作品闯入了校园文化, 东方网, 2004.11.26.)하는 것이나, 중국의 저명한 작가인 홍잉(虹影)이 김하인의 작품에 대해 “실망스럽다”(虹影“炮轰”“韩国琼瑶”:《菊花香》够浅薄, 青岛新闻网-青岛早报, 2003.08.12.)고 평가한 것 등은 시장성과 독자기대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또한, 더우반에 올라온 네티즌 리뷰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우반에 게시된 평가 개수를 보면,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아웃사이더』(이상 귀여니), 『국화꽃 향기』(김하인) 등의 평가 개수는 여타 한국소설에 비해 가히 압도적이다. 평가개수로만 본 상위 10편 가운데 7편이 이들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평점은 상당히 낮다.

<표3>에 제시된 작품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 3〉 당당왕과 아마존 차이나의 한국소설분야 판매순위(4월말 기준)²⁰⁾

순 위	당당	아마존
1	상도 (1) 최인훈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1) 신경숙
2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7) 김영하	채식주의자(2) 한강
3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8) 공지영	고래(4) 천명관
4	왕을 찾아서 (12) 성석제	카스테라(5) 박민규
5	퀴즈쇼 (14) 김영하	회색인(11) 최인훈
6	채식주의자 (16) 한강	물에 잠긴 아버지(12) 한승원
8	고래 (17) 천명관	혀 (14) 전경린
9	서편제(18) 이청준	두근두근 내 인생 (20) 김애란
10	두근두근 내 인생 (20) 김애란	토지1부1권 (21) 박경리
11	공무도하 (21) 김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4) 공지영
12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28) 박민규	고령화가족 (28) 천명관
13	카스테라(29) 박민규	그녀의 눈물사용법 (30) 천운영
14	고령화가족(30) 천명관	검은 꽃 (32) 김영하
15	검은 사슴(31) 한강	오빠가 돌아왔다 (33) 김영하

1-15위까지를 놓고 볼 때, 두 서점 모두에서 순위에 올라와 있는 총 6편의 작품 가운데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채식주의자』, 『두근두근 내 인생』, 『고령화 가족』 등 총 4편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작품의 경우, 영화화된 소설임을 명시한다. 『두근

20) 이들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소설의 카테고리 안에는 영화/드라마를 소설로 만든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문 표에서 의미하는 순위는 이들을 제외하고 순문학 순위만을 정리한 것이다. 작품명 옆의 숫자는 영화/드라마를 소설로 만든 작품이 포함된 전체 한국소설 카테고리 안에서의 순위이다.

두근 내 인생』은 강동원과 송혜교가 주연한 영화의 원작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네티즌들의 서평에도 영화를 본 후 책을 사서 읽게 되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 『고령화 가족』은 겉표지의 띠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당당서점의 편집자 추천에는 공효진과 박해일 주연이라는 것과 VIP시사회 때 수많은 한국 스타들이 함께 했고 개봉한지 나흘 만에 5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것이 먼저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천 이유 세 번째가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작품으로 가족의 회복을 호명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요컨대, 영화의 성공이 가장 우선적인 추천 이유가 되어, 영화로 얼마나 관심을 끌었는지에 대한 소개가 소설 자체에 대한 소개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채식주의자』는 앞의 두 작품에 비해 영화화된 소설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댄스 영화제 출품작이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시선을 끄는 것은 ‘이상 문학상’ 수상작이라는 것과 정신이상자의 감각(感官)세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문구이다. 2013년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맨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점은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기사가 중국 언론에 나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최근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은 맨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²¹⁾ 이에 비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작가 공지영이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지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바, “한국 제일의 인기 작가”, “2009년 독자들이 뽑은 가장 환영받는 작가 1위”, “한국문학의 자존심” 등이라는 추천 문구가 표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의 번역이 2006년 영화화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후인 2010년임을 감안한다면, 굳이 영화 원작임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 영화의 원작이라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원작이라는 것에 편승하기보다 작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중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는 작가의 지명도가 베스트셀러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21) 본 논문을 투고한 후 이 작품이 맨 부커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고, 최종 수정하는 시점(6월 4일)에 두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천명관의 『고래』는 ‘제10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으로 2005년 올해의 책으로 추천된 바 있다. 2013년 중경출판사(重庆出版社)에서 “천당새문집”(天堂鸟文丛)²²⁾의 하나로 발간한 것이다. 중국에서 이 작품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는 ‘한국판 『백 년 동안의 고독』(百年孤独)’과 ‘마술적 리얼리즘’이다. 동시에, 문학동네소설상 수상 경력과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천한 우수도서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백 년 동안의 고독』이 문학사적으로 갖는 의미와 가치를 보자면, ‘한국판 『백 년 동안의 고독』’²³⁾이라는 겉텍스트는 중국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유효했으리라 본다. 박민규의 소설집 『카스테라』에 대해 당당 저평은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되는 한국의 신예작가 박민규의 작품으로 제23회 신동엽창작상을 받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박민규에 대해서는 “신세기 한국문단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상상력 있는 젊은 작가”라고 소개한다. 작품에 비해 작가소개가 앞서 있는 것이다.

요컨대, 상기한 작품들은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작품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식을 보여준다. 대중매체와의 결합, 지명도 있는 문학상 수상 경력, 작가 자신의 브랜드가 그것이다. 특히 『두근두근 내 인생』과 『고령화 가족』이 중국에 수용되는 방식은 한류스타가 출연한 영화의 원작이라는 것이 작품을 소개하는 가장 큰 무기임을 새삼 보여주고 있다.

22) 현재까지 13권이 출간되었다. 총서의 선정기준 관련하여,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미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 호평을 받은 소설, 해당국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거나 문학상 수상 경력이 있는 지명도 높은 작가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대중소설과는 달리 이야기성이 강하면서도 사상적인 깊이가 있고 작가의 독특한 문학적인 저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최근 전경린의 『혀』가 출간되었다.

23) 이 작품을 ‘한국판 『백 년 동안의 고독』’으로 보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설가 임철우가 언급한 것인데, 그는 이 작품을 평하면서 “그 풍부하고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 속에, 보다 구체적인 인간 현실과 삶의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까지 아울러 담겨진다면, 머잖아 우리는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 쿤터 그라스의 ‘양철북’ 같은 감동적인 소설을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담아냈다. 임철우의 표현 가운데, “~담겨진다면”을 번역과정에서 “담겨졌다”로 잘못 옮기면서 전달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IV.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중국의 독법

중국에서 한국소설의 수용 동향을 검토할 때 흥미로운 것은 김영하의 소설에 대한 중국 출판계의 관심이다. 앞선 표에서 알 수 있듯, 김영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작품이 중국어로 번역된 작가이다. 특히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와 『퀴즈쇼』는 2009년 ‘한국당대소설총서’²⁴⁾의 하나로 화성출판사(花城出版社)에서 처음 번역 출간한 것을 2015년 절강문예출판사(浙江文艺出版社)에서 재출간하였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독자수용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김영하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감지된다. 두 인터넷 서점에서 공통으로 순위에 오른 작품은 없지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퀴즈쇼』, 『검은 꽃』, 『오빠가 돌아왔다』 등 총 4권의 작품이 순위에 올라와 있다. 김영하의 작품들은 최근 중국에서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사회문화적인 계기가 특별히 없다. 물론 국내에서 그는 상당히 인기 있는 작가이며, 작품 또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비교적 ‘잘’ 팔리고 있는 여타 한국소설의 특징과 비교해볼 때, 그의 작품은 한류스타가 출연한 영화로 제작된 것도 아니고,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들고 나온 작품도 아니다. 중견작가들처럼 일찍부터 중국에 알려지거나 중국 내 한국어문학 연구의 범주 안에서 많이 연구된 작가도 아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이나 대산문화재단의 번역지원에 의해 출간된 작품은 『빛의 제국』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양대 인터넷 서점에서 고르게 순위에 올라와 있고 몇 년이 지난 작품들이 재출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김영하 문학의 어떤 점이 중국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인가. 김영하의 소설들은 “신세대 감수성의 전위(前衛)”로 일컬어진다. 장석주는 김영하가 “문학의 전범을 변형하고 복제하는 실험을 기꺼이 감행”하는 작가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문학을 두고 “기존의 소설미학의 영토를 벗어나 전복적 상상력으로 세기말의 악마주의적 심미안에서 뿔어져 나오는 소설미학의 새 영지를 일궈낸다”²⁵⁾고 분석한다. 이러한 김영하의 문학은 1990년대 중국

24) 2004년도에 화성출판사에서 기획 출간한 총서이다. 1차로 은희경의 『타인에게 맡길기』(搭讪), 신경숙의 『종소리』(钟声), 권지예의 『폭소』(爆笑), 김인숙의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等待铜管乐队)를 출간하였다.

의 선봉(先鋒)문학을 연상시킨다.²⁶⁾ ‘선봉’은 아방가르드의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에서 선봉문학은 1980년대 중반 나타났는데,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서사 형식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현실과 유리된 채 서사를 진행하지는 않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작가들의 개인적인 창작성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처음 선봉문학이 등장하던 때의 실험적인 경향은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 중국문단에서 대중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작가들은 바로 이 선봉문학 작가들이라 할 수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모언(莫言)은 선봉문학의 등장을 알린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수둥(苏童), 위화(余华), 거페이(格非) 등 대표적인 선봉 작가들의 작품은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되었다. 이들 문학의 특징은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통찰력, 이를 풀어내는 서사방식의 참신함에 있을 것이다. 김영하의 문학은 바로 이 점에서 중국 독자들과 접점을 찾는다. 현실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중국이 보는 김영하의 가장 큰 문학적 강점이다. 당당 서점은 김영하를 “한국의 카프카”로 소개한다. 실존주의 문학의 대가로서 카프카 문학의 특징을 떠올려본다면, 중국 독자들에게 김영하가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컨대, 『퀴즈쇼』에 대한 당당 서점의 편집자 추천의 변은 “신생대(新生代)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가감 없이 폭로”했다는 데 있다. 아마존 차이나는 이 작품이 “바링허우(80后)가 직면한 수많은 명제들을 탐색하고 있다”면서, “트렌디하지만 퇴폐적인 인생”을 전시하고 “아시아 바링허우 청년의 생존상황”을 표현하고 있어, 현재의 중국사회에도 거울이 된다”고 소개한다. 두 서점 모두 공간을 초월하여 ‘바링허우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여타 문제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는 데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특유의 고품격 유머에 신맛까지 더한다”(조선일보), “인터넷 채팅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서태지 세대’의 이야기”(한국경제), “요즘

25)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야기, 2009, 946쪽.

26) 김영하의 소설의 전문 번역가라 할 수 있는 쉬저우(薛舟)는 김영하 소설에 대한 평론에서 그를 “한국의 선봉작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27) 김영구, 김진공 공저, 『중국현대문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241쪽 참고.

인터넷 세대의 삶을 톡톡 튀는 필치로 그려내 많은 젊은 독자들이 내 이야기와 똑같다고 감탄한다”(연합뉴스)와는 분명 다른 시선이다.²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독특한 서사형식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 중국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선봉문학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보편적인 소설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선봉문학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편견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중국에서 선봉문학은 양날의 칼일 수 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나 독특한 스타일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구성으로 난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선봉문학의 실험적인 경향이 더 이상 적극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김영하 소설이 갖고 있는 선봉문학적 특징을 강조하면서도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선봉문학의 강점은 살리면서 한계는 최소화하여, 참신하면서도 현실성과 가독성을 갖춘 작품을 원하는 중국 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더우반(豆瓣)²⁹⁾에 올라와 있는 김영하 작품에 대한 리뷰를 보면, 그의 작품이 담아내는 현실의 묵직함 때문에 작품의 무거움에 대해 의외의 놀라움을 표하는 리뷰들이 눈에 띈다. 이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에서 공히 드러나는 바, 저평가된 작품이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더 이상 카프카를 모방하는 한국의 하루키가 아니다”(阿尔吉依, 2014-04-10)는 의견도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작가도 이렇게 적나라하면서도 무거운 소설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竹小七, 2011-10-09)는 한 네티즌의 리뷰이다. 이는 한국현대소설이 중국독자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일면이나마 짐작케 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번역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번역은 한국현대소설의 중국 내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중국의 한 언론매

28) 이상 언론보도는 『퀴즈쇼』의 한국어본 뒷표지 ‘추천의 글’을 옮긴 것이다.

29) 책,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네티즌들은 자유롭게 책, 영화, 음악 등에 대해 리뷰를 작성하고 평점을 매긴다.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는데, 2012년 기준 1억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체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이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작품들도 중국에서는 전혀 독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바 있는데, 한국문학 자체가 갖고 있는 번역상의 난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보기도 했다.³⁰⁾ 물론 서사방식이나 표현 등에서 한국문학 자체의 특징 때문에 번역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문학텍스트 번역은 본질적으로 일반번역과는 다른 것들을 역자에게 요청한다. “표현적 텍스트”³¹⁾로서 문학텍스트의 특수성상, 역자는 원작이 내포하는 미학적인 장치까지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학적인 가치를 재현하기 위해서 역자는 원천텍스트의 의미뿐 아니라 이것의 예술성을 구현하고 있는 다양한 미학적 장치들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역자에게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문학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도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순히 출발어를 도착어로 바꾼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체적인 세심함보다는 속도감 있는 문장을 구사하는 김영하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번역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의 작품을 번역하고 있는 쉬에저우는 원작자와의 밀착도 면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번역가라 할 수 있다. 시인이기도 한 그는 중국에 번역된 김영하 소설 5편을 모두 번역한 역자이다. 시인이라는 그의 또 다른 직업은 그가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이나 이해력, 그리고 표현능력 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또한, 김영하 소설 5편을 모두 번역했다는 점은 김영하 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이나 이해 정도가 상당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점에 올라와 있는 독자리뷰 중에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와 『퀴즈쇼』 번역의 우수함을 언급하는 글들도 있었다. 문학번역은 역자가 작가를 이해하고 작가와 작품을 공유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어느 한 작가를 얼마나 많이 접했는지의 여부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일 수밖에 없다. 김영하 문학의 중국어번역은 한 작가에 대한 전문역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김영하 소설의 중국 수용 양상은 우리 문학이 중국에서 ‘읽힐 수 있는’ 여

30) 「韩国作家图书在中国不好卖 两国畅销书理念不同」, 『半岛晨报』, 2012.6.5.

31) 레이브(K.Reiß)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번역방식을 분류하면서 문학을 “표현적 텍스트”라고 했는데, 이는 원전의 저자가 언어의 미학적 차원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석규 외 지음,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도서출판 역락, 2002, 120쪽.

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천명관, 박민규, 김애란 등 젊은 작가의 중국 수용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현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톡톡 튀는 서사방식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들이 천착하고 있는 삶과 현실은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경계를 넘어선다. 중국이 한국소설을 독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양국이 작품을 해석하는 시선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천명관의 『고래』를 보자. 이 작품에 대한 국내 평단의 시선은 대체로 이야기성에 집중된다. “‘가볍게’ 소설은 시작하지만, 눈덩이처럼 부풀어가는 이야기와 문장은 가히 ‘대해(大河) 구라’라 할 만하다”³²⁾, “뭐니 뭐니 해도 ‘고래’의 덕목은 재미다”³³⁾, “기승전결이라는 소설의 정통적 작법을 빌리지 않고서도 긴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³⁴⁾ 등등, 이 작품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는 기존의 소설작법에서 이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강한 이야기성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한국판 『백 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것과 마술적 리얼리즘을 잘 구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우반에 게시된 독자리뷰를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동양의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전설로 만들었다”(陈菲斯突, 2013-08-09), “한국판 『백 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找不到昵称, 2011-09-12)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독자들의 글도 적지 않게 보였다. 이 결텍스트를 벗어나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순수한 느낌을 보자면 이 작품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중국의 독자들은 대체로 생동감 넘치고 흥미진진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작품이 전달하고 있는 삶의 깊이에 대해 감동을 표한다. “작품에 대한 소개를 보고는 단지 환상소설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이 담고 있는 인생의 심오한 이치가 이렇게도 깊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爱读酥的大老黑, 2015-01-29), “작년에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감동이 남아있다. (...) 모든 등장인물이 생동감 넘치며 색깔이 강하다”(upup, 2013-

32)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 『한국일보』, 2004.12.21.

33)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 천명관 '고래」, 『경향신문』, 2004.12.27.

34)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 출간. "여인 3대 파란만장한 가족사", 『한국경제』, 2004.12.30.

07-02), “이 짝막한 작품소개에 담긴 내용은 내가 작품을 펼쳤을 때 느낀 깊이와 감동에 한참 못 미친다. 이 거대한 슬픔은 더더구나 담아내질 못한다”(找不到呢称, 2011-09-12) 등등, 이 작품에 대한 리뷰에서는 ‘흥미진진하다(娓娓道来)’는 것과 함께 ‘감동(震撼)’, ‘깊이(深刻)’, ‘심오(深奥)’라는 어휘들이 많이 보인다. 즉, 작품의 이야기성을 긍정함과 동시에 그 이야기가 가져오는 충격과 감동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남방일보의 기사이다. 남방일보는 이 작품을 “몽환적인 색채로 가득한 장편소설”이라고 규정하면서, “오늘날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인류의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³⁵⁾이 드러나 있기에, “오늘날의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시아 사회현실”을 떠올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경제발전에만 따른 사회적인 변형을 기형적이라고 보고 경제적인 지표에만 의거한 사회적인 성공은 결국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읽어내기도 한다. 이 기사가 이 작품에 대한 중국의 시선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천명관 소설을 읽는 중국의 독법, 나아가 소설을 읽는 중국의 독법이 어떤 어디에 있는지를 대체적으로 짐작케 한다. 기사에서 나타나듯, 『고래』에 대한 중국의 독법은 완전히 중국의 사회현실에 기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물질중심주의와 인간소의 등 경제발전의 어두운 그늘을 체감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하의 작품에서 한국을 넘어 중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바랑허우 세대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읽어낸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물질이 모든 것을 앞서는 시대 동아시아의 현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자면, 중국독자들은 소설이 어떻게 당대 인류의 삶을 보고 사회를 말하는지에 독해의 초점을 둔다.

정리하자면, 김영하를 비롯하여 천명관, 김애란, 박민규 등의 작품은 현실과의 밀착 지점을 보는 중국독자들의 독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사방식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장의 구사로 가독성이 높다. 가독성 높은 문장은 번역과정에서 재현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밀한 문체로 독특한 풍격을 구사하는

35) 「《鲸》：难以逃脱的诅咒」, 『南方日报』, 2011.7.3.

작품의 경우에는 번역을 통해 문체적인 특징을 섬세하게 살려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지루할 수 있으나,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장은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국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참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언어적인 난항이 덜하다는 것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관심이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한다는 데 있다. 첫째, 중국에서 한국현대소설이 주변에 놓여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읽히는 작품은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냉담함은 한국현대소설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오해와 편견은 문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류라는 이름을 업고 너무나 쉽게 중국독자 앞에 나타난 일부 작품들에 기인한바 크다. “문학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가 작품이라면 설령 중국에서 지명도가 낮더라도 출판하겠다”³⁶⁾는 한 출판업자의 말은 그간 번역된 한국현대소설의 한계가 무엇이며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사해준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중국독자들—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위의 분석에서 나타나듯, ‘책’을 읽는 중국의 독자들은 문학 본연의 역할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을 선호한다. 이는 인류사회에 대한 관심일 것이고 현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작가의 통찰력일 것이며 이를 풀어내는 작가의 방식일 것이다. 때문에 한국현대소설이 중국에서 그 마땅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문학성을 갖춘 작가 작품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이를 꾸준히 소개하는 작업일 것이다.

V. 나오면서

이상, 최근 5년 동안을 중심으로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현대소설의 현황 및 이들의 중국 내 수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36) 「韩国作家图书在中国不好卖 两国畅销书理念不同」, 「半岛晨报」, 2012.6.5.

다양성이다. 이광수, 김유정, 김동리 등 한국근대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작품부터 박경리, 이문열, 신경숙, 공지영, 김영하, 박민규, 천명관, 김애란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이 고르게 번역 소개되고 있다. 둘째, 당대 여성 작가 작품들에 대한 번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없이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번역 출간하는 작품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컨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탄탄해지면서 한국현대소설의 지형도를 그려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하, 천명관, 김애란, 박민규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등단한 작가 작품들이 중국에서 비교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기존의 서사방식에서 벗어나 있고 현실과 밀착되어 있으며 가독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참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번역이 우수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관심은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에서 한국현대소설이 주변에 놓여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그 안에서도 읽히는 작품은 읽힌다는 사실이다. 둘째,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중국독자들의 냉담함은 한국현대소설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한국현대소설이 중국에서 올바르게 인식되고 마땅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작업이 필수적이라 본다. ‘문학’번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전문번역가의 양성, 문학성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지도를 고루 갖춘 작품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전’의 번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현대문학 연구자, 번역자와 출판주체 간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하며 낡은 명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중국어로 번역 출간된 작품의 현황과 이들의 중국 내 수용현황은 이러한 명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陳玉剛主編, 『中國文學翻譯史稿』,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1989.
- 胡風, 「胡風回憶錄」, 『胡風全集』(第7卷), 湖北人民出版社, 1994.
- _____, 「<山靈>序」, 『胡風全集』(第8卷), 湖北人民出版社, 1994.
- 박재우, 「한중현대문학교류사고(1) -작품 번역에 의한 교류와 그 과제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39집, 1999.
- 이석규 외 지음,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도서출판 역락, 2002.
- 이병길 외,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 연구-한류현상을 계기로 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국문학번역원, 2005.
- 趙莉, 「韩国文學翻譯三十年(1976-2006)」, 『外國文學動態外』, 2006年 第5期.
- 金長善, 「20世紀後半期韓國文學譯介在中國」, 『世界文學評論』, 2006年 第2期.
- 고인덕,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수용 사례에 관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43호, 2006.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 이야기, 2009.
- 김학철, 『20세기 한국문학 中譯史 연구-이데올로기와 문학번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 홍정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문학사연구』 43호, 2010.
- 박옥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베스트셀러에 관한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2호, 2011.
- 김경숙,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과 독서의 사회사-1980~1990년대 베스트셀러 시의 ‘사랑’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2011.
- 김영구, 김진공 공저, 『중국현대문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 金一, 「韩国文學中在中国的翻譯与出版现状综述」, 『延边大学学报』, 2013年8月.
- 金鶴哲, 「中韩建交以后中国文坛对韩国中在中国的翻譯与出版现状综述」, 『延边大学学报』, 2013年8月.
- 왕염려, 『중국의 한국 현대 문학 번역 및 수용 양태 연구 : 수교 이후 번역된 소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4.
- 朱英華, 曲瑩, 「韩国引进版图书出版现状浅析」, 『活力』, 2015年3期.
- 「《鯨》: 难以逃脱的诅咒」, 『南方日报』, 2011.7.3.
- 「韩国作家图书在中国不好卖」, 『半岛晨报』, 2012.6.5.
- 于丽丽, 「静静的韩流: 韩国文学在这些年」, 『新京报』, 2012.9.3.
- 「韩国作家图书在中国不好卖 两国畅销书理念不同」, 『半岛晨报』, 2012.6.5.

「中国出版人如何在韩国图书中掘金?」, 『中国出版传媒商报』, 2014.9.16.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 『한국일보』, 2004.12.21.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 천명관 '고래」, 『경향신문』, 2004.12.27.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 출간 "여인 3대 파란만장한 가족사"」, 『한국경제』, 2004.12.30.

豆瓣读书 <https://book.douban.com/>

❖ ABSTRACT

A Study of Chinese Translation and Reader Reception of the Modern Korean Novel, Focusing on the Last 5 Years

Choi, Eun-Jeong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modern Korean novels translated into Chinese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how they are perceived by readers. Translation of modern Korean novels over the past five years has a few important characteristics as the following. The first characteristic is diversity. Books written by the most representative modern Korean writers, like Lee Gwang-soo, Kim Yu-jung, Kim Dong-ri, and books of the authors with very unique ideas, such as Park Kyung-ri, Lee Mun-yeol, Shin Kyung-suk, Gong Ji-young, Kim Young-ha, Park Min-kyu, Cheon Myung-gwan, and Kim Ae-ran have been translated and introduced to the Chinese population. Secondly, there are active translation of the books written by female writers. Lastly, without the support of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or the Daesan Foundation, the number of works translated and published is slowly increasing.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translations, the quality of translation is improving. However, interest on the part of Chinese readers in the modern Korean novel is not very high. But, the works of authors like Kim Young-ha, Cheon Myung-gwan, Kim Ae-ran, and Park Min-kyu, who began their literary careers after the mid-90s, are drawing relatively more attention. The common features of such works are the novelty of the narrative methods, attachment to reality, and readability. The interest shown by Chinese readers i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two following factors. First, it is true that many modern Korean novels are available in China, but only those that have been read will continue to be read. Second, the indifference of Chinese readers to modern Korean novels is because they are not yet aware of the existence of such works. It is important to train professional translators who can properly translate literature and also to focus on introducing the differences in modern Korean novels through canonical translation. To achieve this aim, not only supportive policies, but also cooperation between researchers in the field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and publishers is essential.

Key Words

modern Korean novel, Chinese translation, reader reception, novelty, reality, readability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